

노인의 성 실태 조사

오진주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는 노인들의 성생활 빈도, 성적욕구 및 성생활 만족도 정도와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신체자아와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생활 빈도와 성 욕구 및 성생활 만족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지난 1개월간의 성생활 빈도는 평균 2.83회로 나타났다. 성생활을 전혀 하지않은 빈도는 전체의 43.1%로서 남자는 26.8%, 여성은 64.5% 였다.

(1) 성생활 빈도; 전체 대상자의 평균 빈도는 2.83회이며, 남자($p=.00$)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도가 증가한다($p=.03$).

(2) 성적욕구; 남자일수록($p=.00$),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p=.03$) 개방적 태도일수록 ($p=.00$), 평생활발한 성활동을 했을 때($p=.00$), 배우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욕구가 높다 ($p=.00$).

(3) 성생활 만족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p=.00$), 성에 대해 개방적일수록 ($p=.02$), 평생 활발한 성생활을 한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다($p=.00$).

2. 성생활 빈도와 성욕구 및 성생활 만족도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성생활 빈도와 성적욕구는 유의한 상관성($p=.00$)이 있고, 성적욕구와 성생활 만족도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p=.01$). 그러나 성생활 빈도와 성생활 만족도는 상관성이 없다. 즉, 성적욕구가 강할수록 성생활 빈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성생활 빈도가 많다고 만족도가 높지는 않으며, 오히려 성적욕구의 강도가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3. 성생활 빈도와, 성적욕구 및 성생활 만족도는 자아존중, 우울, 신체자아와 관계가 있는가?

성생활 빈도와 성생활 만족도는 신체자아나 자아존중이나 우울과 관련성이 없었고 성적욕구만이 우울과 신체자아와 관련성을 보였다($p=.04$, $p=.00$).

결론적으로 성적욕구는 노인의 성생활에서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성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이면서 신체자아와 우울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성적욕구가 노인의 정서적 상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단은 성적욕구에 대한 중재가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신체자아와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적욕구와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의료적 중재,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중재, 노인의 성생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중재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욕구와 노인의 정서상태와의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노인의 성적욕구는 지속되는 것으로서, 전인적 간호의 제공이라는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성적욕구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